

복지관 11대 뉴스

## 홍천군노인복지관 2021년 11대 뉴스

### 복지관 개관 10주년 어버이날 기념행사



“함께 수놓은 10년, 아름다운 노년의 시작”이라는 슬로건으로 사례관리대상 110명에게 쌀20kg, 카네이션, 감사카드를 전달했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수

타사의 후원으로 이루어졌으며 2011년 개관하여 지역사회와 함께 지난 10년의 발자취를 되돌아보았습니다.

### 아삭아삭 김장담그기 행사



동절기 김장철을 맞이하여 지병임 이용희 원 및 사회복지대학 총동문회의 후원으로 김장담그기 행사를 진행했으며 10개 읍면에 거주하는 홀몸어르신 총

100가구에 김장김치를 후원했습니다. 다솜회, 홍천군 안전보안관의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참여했으며 주식회사 엘지헬로비전, 현대 씽크에서 김장재료를 지원 해주었습니다.

### 독거어르신 가정에 홀돌&훈순이 선물



지난 9월 한달 동안 홍천희망로터리클럽의 후원으로 독거어르신 4가정에 홀돌&훈순이를 선물했습니다. 홀돌&훈순이는 홍천군노인복지관에서 어르신이 부

르기 쉽도록 만든 명칭으로 정식명칭은 호돌&호순이입니다. 홀돌&훈순이는 인형 내 센서가 부착되어 있어서 어르신의 움직임 하나하나 감지를 통해 어르신의 안전 및 일상생활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치매예방 프로그램 ‘청춘교실’



지난 4월부터 8개월 동안 치매고위험군 어르신 및 예방이 필요하다 생각하시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태블릿PC를 이용한 전산인지재

활 활동, 실버복지미술, 공예 및 원예수업 등 다양한 치매예방을 위한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 노인상담사 양성반 운영



지난 6월부터 두 달동안 초고령화 사회로 들어선 지역 노인들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 인식과 상담가로서의 전문적 자질을 키우기 위한 노인상담사 양성반을

운영하였습니다. 15회기 과정으로 진행되었으며, 무더운 여름, 열정을 잃지 않고 출석해주신 10명의 어르신들에게 수료증을 전달하였습니다.

### 지역문화플랫폼 1·3세대 공익광고 프로젝트 ‘힘하게 노소(老少)’



지난 6월부터 4개월 동안 1세대(홍천군노인복지관 가곡반)와 3세대(두촌중학교 밴드부)가 함께 합작하여 공익광고를 만드는 ‘힘하게 노소(老少)’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1세대와 3세대가 함께 공익광고 주제를 정한 후 작곡 및 작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공익광고 주제는 ‘스마트폰 중독’으로 정하였으며, 참여자들끼리 10회기 및 자조모임을 통하여 화음을 맞춰보았습니다. 이번 공익광고 프로젝트 ‘힘하게 노소(老少)’ 뮤직비디오는 홍천군 및 홍천군노인복지관 유튜브에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사례관리 집단프로그램



지난 7월부터 5개월 동안 2021년 사례관리 고위험 및 중위험군에 해당되는 어르신 중에서 프로그램 참여를 원하는 어르신 10명을 대상으로 집단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원예, 도예, 건강증진, 치매 및 우울예방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며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하여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제공, 치매안심센터와 연계하여 치매 및 우울예방 프로그램 및 사전사후 검사를 제공하였습니다.

### 실버자원봉사 스마트폰 교육 봉사단 ‘실버it단’ 창설

지난 9월에는 홍천군노인복지관에서는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있으며 스마트폰 사용에 능숙한 어르신들 10명을 선정하여 전문적인 스마트폰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교육을 토대로 실버자원봉사 스마트



폰 교육 봉사단 실버it단을 창설하였습니다. 실버it단은 면 단위 경로당에 파견 나가 스마트폰 교육 봉사를 진행하며, 홍천군노인복지관으로 찾아오는 어르신들에게도 교육 봉사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 고령운전자 온라인 교육센터 운영



지난 9월부터 3개월 동안 도로교통공단 강원도지부에서 실시하던 고령운전자 운전면허갱신 대면 교육이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 시행됨에 따라 디지털 기기 활용 부족으로 교육 수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홍천군 고령운전자들을 위해 홍천군노인복지관은 온라인 교육센터로 운영되었습니다.

### 홍천알림선배시민자원봉사단 『강원도 선배시민정책대회』 참가



지난 10월 14일, 강원도 춘천 한림대학교에서 열린 『제2회 강원도 선배시민정책대회』에 홍천알림선배시민자원봉사단이 참가하였습니다. 강원도 지역의 14개

소 선배시민봉사단이 참여하여 지역에 필요한 정책을 제안하는 자리로 홍천알림선배시민자원봉사단에는 ‘지역주민의 병·의원 이용실태조사로 알아보는 군 소재지 위급한 의료수준 개선방안 마련’이란 제안으로 선배시민 최정규 부의장이 정책제안 토론과 발표를 하였습니다.

### 결핵 및 호흡기질환 무료 이동검진



지난 10월에는 대한결핵협회 강원도지부와 홍천군보건소의 연계로 홍천 관 내 60세이상 어르신 400명을 대상으로 기초체위검사, 의사문진, 흉부엑스선 촬영, 심전도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핵, 호흡기질환 무료 이동검진으로 결핵을 조기 발견하고, 홍보를 통해 결핵 전파 방지 및 인식 개선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CONTENTS

02 - 복지관소식

03 - 유관기관탐방 : 홍천소방서

04 - 인물탐방 : 강정식 작가

05 - 예술기행 : 화선지에 담아보는 노년의 행복

06 - 홍천강, 길따라 맛따라

07 - 지역소식 : 골프대회

07 - 문화탐방

08 - 인생칼럼

08 - 홍보





# 지역의 어르신; 시니어들이 뭉쳤다



◇ 2021년 제2회 홍천군선배시민정책대회 참가자들 모습.

노인, 늙은이, 은퇴자, 할아버지, 할머니, 시니어. 장년층 등이 모든 호칭들은 나이 들은 사람들을 의미하는데 어느 것 하나도 청년, 젊은이란 용어처럼 긍정적이며 활동적으로 들리지 않는다. 오히려 삶의 현장에서 물러나 조용히 쉬면서 죽음을 기다리는 다소 암울한 느낌의 어감이 있는 호칭이다. 심하게 말하면 사회에서 용도가 폐기된 사람들에 대한 호칭이라고나 할까. 하지만 노인에 대한 평가는 이제 달라지기 시작했다. 100세 시대를 맞이한 요즘 노인은 이제는 더 이상 어제의 노인이 아니다. 활동하고 참여하고 봉사하는 적극적 시니어 계층의 다변화로 노인에 대한 시각이 달라지고 있다. '노인 한 명이 사라지는 것은 도서관이 사라지는 것과 같다.' '노마지지(老馬之智)'와 같은 말에서 보듯 노인은 지혜의 대명사다. 여기에 이전과 달라진 신체적 건강으로 아주 활동적이며 열정적인 시니어들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이들을 '선배시민'이라 호칭한다면 이제 예전의 노인관(老人觀)과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 홍천알림 선배시민자원봉사단

노인복지관은 전국의 각기 지자체에서 운용되고 있다. 노인들은 이곳에서 여러 가지 취미활동을 하고 평생학습 차원에서 무엇이든지 배운다.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서 컴퓨터나 외국어를 배우기도 하고, 악기와 춤을 배우기도 하며 여러 가지 운동 및 바둑, 장기, 당구 등의 취미활동도 하게 된다. 이 모든 활동은 당연히 친교활동을 포함한다. 만나서 정보를 교환하거나 자신의 생각들을 서로 토론하고 지역의 문제점을 짚어내기도 한다. 홍천 노인복지관에서는 이런 노인들의 지혜와 해안에 주목하고 시니어들의 여러 의견과 견해를 녹여내어 홍천군 정책 방향에 이바지할 수는 없을까를 고민하던 중 참여의지가 높은 복지관 이용 회원들을 대상으로 선배시민 자원봉사단원을 모집하고 지난해 10월 공식적으로 '홍천알림 선배시민자원봉사단'이라는 봉사단을 창단하게 되었다. 정성기 의장과 최정규 부의장을 비롯하여 김영득, 남궁유

근, 서동환, 성인복, 원명수, 유병창, 이옥희, 정규중, 홍성구, 김민호, 김봉조, 김순화, 김진하, 손진하, 이관의, 주용진, 천판암, 최문규 위원 등 모두 20명의 창단 멤버는 남다른 의지와 열정을 갖고 선배시민 자원봉사단에서 활동하고 있다.

### 역점 사안 1. 교통 정책을 고민하다

점점 가팔라지는 노령화로 도시 인구는 증가하는 반면 시골의 읍·면 지역 인구는 감소하고 있다. 그나마 홍천은 2016년 전국 최초로 귀농·귀촌 특구로 지정되어 유입되는 인구의 증가세로 사정은 나은 편이다. 이들이 귀농·귀촌 동기로 홍천을 선택한 이유 중의 하나는 교통의 편리성이었다. 사통팔달의 도시 홍천은 일견 교통의 중심지로 알려졌으나 원주민의 입장에서 귀농·귀촌한 이주민 입장에서 편리한 교통 인프라를 갖추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생각이었다. 선배시민 자원봉사단은 이런 점에 착안하고 한창 이야기가 되고 있는 홍천-용문간의 철도 유치에 힘을 보탤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하며 지난해 이를 역점 사안으로 삼았다. 우선 철도 유치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이를 홍천군 시민들에게 알리는 역할에 중점을 두어 한편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조사하며, 다른 한편으로 홍천군청의 철도유치추진단 T/F팀을 도와 추진단의 사업추진에 동력을 불어넣었다. 철도 유치 염원에 대한 가두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다.

특히, 이 제안은 강원도 선배시민자원봉사단 정책토론회에 참가하여 입상하기도 했다. 이러한 노력은 마침내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서에 홍천-용문선이 추가되는 쾌거를 얻기도 했다. 또한 현장조사로 보행자를 인터뷰하여 회전교차로나 교통량이 많은 골목에 버튼식 신호등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이를 관계기관에 건의하기도 하였다.

### 역점 사안 2. 보건 정책을 고민하다

홍천은 자타가 공인하는 건강놀이터이다. 빼어난 자연 경관과 공장이 별로 없는, 건강을 지키는데 최적지라 할 수 있다. 선배시민 자원봉사단은

이런 점에 착안하여 모든 이의 관심사인 건강과 의료 기관에 대해 관심을 가졌다. 가장 먼저 홍천군 아산병원에 주목했다. 아산병원은 명실상부한 홍천군의 최대 종합병원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 사이에 별로 좋은 인상을 심어주지 못했다. 주민들은 큰 병이 생기면 1차 진료기관을 피하고 거주지에 먼 거리에 해당되는 원주 또는 춘천, 서울의 대형 종합병원에 찾아가는 실정이다. 문제해결을 위해 선배시민자원봉사단은 홍천군민을 대상으로 병·의원 이용 실태 조사를 하였다. 아산병원의 사례위주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방식을 건의해 실시하였으며, 홍천아산병원 담당자와 함께 만족도 조사표의 항목별 구체적 사례 설명 및 해결 방안도 모색하였으며 홍천군과의 정책토론에서는 홍천아산병원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관심을 촉구하기도 하였다. 또한 아산사회복지재단과의 정책토론에서는 홍천아산병원과 서울아산병원의 연계성 확대를 요구하기도 하였으며 의료장비 지원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아울러 병원 신축이 계획되어있는 홍천아산병원에 최신 의료장비 확충, 진료과목 증설, 고객대기석 전광판 설치 등도 요구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결국 주민들의 만족감을 높여 홍천아산병원이 홍천 지역의 허브 병원으로서 거듭나고 의료의 질과 서비스 측면에서 주민들의 신뢰를 얻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은퇴하여 물러난 노인들 하나하나의 힘이 없다. 그들이 각계각층에서 쌓아온 연륜과 지식도 혼자라면 무력하다. 하지만 이들의 지식과 경험, 지혜를 한 곳으로 모을 수 있다면 이는 엄청난 힘이 될 수 있다. 선배시민자원봉사단이 지금까지 해 온 일들도 참으로 지대하지만 앞으로 그들은 보다 큰 꿈을 갖게 되었다. 홍천지역의 크고 작은 현안들에 대해 노인들의 관심을 갖게 하고, 보다 많은 활력적인 노인들이 참여하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또한 '자기목소리로 공동체에 참여하라!'라는 정언명령을 몸으로 실천하는 중이다.

김민호 기자(minho215@hanmail.net)



유관기관탐방

홍천소방서

# 홍천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최고의 소방서



◇홍천소방서 전경



◇홍천소방서장 소기웅

### 소방관과 소방서는 무슨 일을 할까?

홍천군의 소방과 응급환자 수송 등 군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기 위하여 다양한 서비스와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홍천소방서를 소개한다.

홍천소방서(서장 소기웅)는 1993년 2월에 개서하여 홍천소방서(구조대, 홍천119안전센터)를 비롯해 3개 소의 119안전센터(양덕원, 서석, 팔봉)와 6개소의 119지역대로 이루어져 있으며 227명의 소속 직원들이 각 분야별 전문성과 자질을 갖추어 홍천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오늘도 맡은 바 임무에 매진하고 있다. 소방서의 업무는 크게 화재, 구조, 예방이라는 3가지로 형태로 분류된다.

### 60초안에 소방차 출동

홍천소방서의 3가지 중점 업무진행 사항을 살펴보면

첫째 홍천소방서는 화재진압 태세를 확립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 홍천군 언제 어디서든 365일 24시간 화재사고현장에 즉각 출동 태세를 확립하고 있다. 긴급전화를 10초 안에 접수하여 60초 안에 1대 이상의 소방차가 출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대형화재가 발생하면 인접한 2개 이상의 소방관서에서 응원 출동하여 광역 소방체제를 구축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경찰, 군인, 전기안전 및 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 소방장비 보유업체와의 소방응원협정을 체결하여 1분 1초라도 빨리 화재현장에 출동할 수 있도록 합동훈련도 실시하고 있다.

### 각종 재난, 사고, 응급환자발생 출동

둘째 화재, 교통, 붕괴, 수난, 산악, 폭발사고, 고립 등 어떠한 형태의 사고현장에서라도 응급환자가 발생되어 신고전화가 들어오면 소방서에서는 60초 이내 출동한다. 그 뿐만 아니라 동물구조, 단순

문잠김과 같은 비상상황에서조차도 유관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여 10분 이내 이와 같은 내용을 알리고 30분 이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 같은 각종 화재사건 현장활동은 통계(홍천소방서 제공)에 따르면 올해 (2021년) 화재 116건, 구조 1,189건 구급 2,932건의 현장활동을 전개했다.

### 화재예방, 소방검사, 교육 실시

셋째 화재예방을 위하여 시기별, 대상별로 화재원인을 분석하고 중점관리대상을 선정하여 소방검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특히 화재가 발생하기 쉬운 월동기, 봄철, 연말연시 등 취약기간에는 재래시장과 대형공장, 공공주택시설 등 취약시설에 대한 특별검사를 1회 이상 실시하는 특별경계근무에 임하여 화재 및 재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 독거노인, 영세가구 소화기, 화재경보기 무상공급

또한 홍천군민의 생활 속에 안전문화와 의식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남녀노소 연령별, 계층별 특성화된 소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화재, 구조, 응급처치와 관련된 교육을 원하는 학교, 단체, 기관은 홍천군소방서 홈페이지 또는 유선연락(033-439-2322)을 통해 신청하면 소방교육을 받을 수 있다.

화재사고의 예방과 사후수습을 비롯하여 TV, 신문 등 다양한 홍보매체와 누리비를 통해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올해부터 3년간 홍천군의 지원을 받아 독거노인과 영세 가구를 통해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올해부터 3년간 홍천군의 지원을 받아 독거노인과 영세가구를 우선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화재경보기)설치를 100% 달성을 위하여 무상보급에도 힘쓰고 있다. 그 이외에도 다양한 소방활동을 통해 군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있다.

### 긴급출동위해 민원실 2층에 위치

홍천소방서가 일반 관공서와 달리 눈여겨보아야 할 점은 민원실이 통상 1층에 있는데 반해 홍천소방서는 긴급출동을 위해 민원실을 2층에 배치한 것이 돋보였다.

### 홍천 출신 소기웅 서장 고향 안전, 행복지킴이 자임

소기웅 서장은 “강원 영서 내륙의 교통중심지에 위치하여 천년고찰 수타사와 가리산, 팔봉산 등 명산이 자리잡고 있으며 아름다운 홍천강이 흐르고 있어 관광객이 찾아오는 살기 좋은 고장, 홍천군의 안전과 행복가치를 존중하고 주민생명 보호를 최우선하여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소방, 도움이 필요할 때에는 언제든지 찾아서 도와주는 소방, 현장에 강한 최고의 소방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며 고향과 삶의 터전인 홍천군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건조한 기후와 부주의로 각 가정에서 화재 발생빈도가 높은 만큼 화재안전 예방에 조금 더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며 2가지 중점 사항에 대해 역설하였다.

첫째, 화목보일러 등의 사용 부주의로 화재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홍천군의 경우에는 지난 5년간(17~21년) 화재 건수가 평균 8.6건으로 차지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둘째, 겨울철 화재위험 3대 전기난방기구(전기장판, 전기히터, 전기열선)의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사고도 급증하는 만큼 이 또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을 역설 한다. 이와 더불어 “겨울철에 화재로부터 안전하고 군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맞이할 수 있도록 화재예방 및 대응방법에 대하여 숙지하며 실천 대응태세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다짐한다.

전소열 기자(silverhong21@naver.com)



# “홍천살이 70년”의 저자 강정식 작가를 찾아서

홍천의 변천사를 지켜보며 홍천에 관심을 가져  
홍천살이 70년은 애향심을 고취하는 지침서



◇수상하는 강정식 작가

홍천 실버신문에서는 인물 탐방을 연재하고 있다. 홍천에는 훌륭한 인물이 많다. 자신의 삶을 잘 가꾸어 나중에는 꽃처럼 활짝 피어나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쓰고 있다. 여러 분야에서 자신만의 독특한 노하우와 불굴의 의지로 자신의 삶을 개척하고 그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 다른 사람들의 귀감이 되고 있는 보통 사람이지만 쉽게 볼 수 없는 전형적인 인물의 이야기를 쓰고 있다.

금번 호에는 홍천문인협회 현재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는 홍과 강정식 작가가 홍천살이 70년의 저작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펼치고자 한다. 필자가 홍천살이 70년의 저술을 주목한 것은 작가가 실제 홍천에서 70여 년을 살아오면서 보고 느낀 것을 사생활처럼 소상하게 그려내고 있어 개인의 기록이지만 광의의 의미로는 홍천의 역사를 기술하고 있다는 데서 크나큰 의미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 홍과 강정식 작가의 자택을 방문하다

오래전부터 강정식 작가와는 문협의 활동을 같이 해오고 있는 관계로 그의 면면을 잘 알고 있지만 자택을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5년 전 밤에 잠깐 들린 것이어서 집을 찾기가 힘들었다. 전화로 약속해 예총(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홍천지부)에서 만났다. 집은 예전에 지은 집이어서 고풍이 서려 있었고 집안으로 들어서자 온통 책으로 채워져



◇강정식 작가

있었다. 빼빼미 책과 기록물들이 질서 정연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60년~70년 전의 초·중·고 시절의 일기장 그리고 태어나면서부터 현재까지 순간순간을 담은 빛바랜 사진들과 많은 상장, 표창장이 가지런히 주인의 손길 따라 방문객의 시선 장을 이루고 있었다. 다음은 몇 가지 알고 싶은 이야기를 나눠 보았다.

### Q: 최근 근황은 어떠하신지요?

A: 저는 아침형 인간이 아니고 저녁형 인간이라고 할까요? 저녁에는 책을 보며 글을 써야 하는 관계로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납니다. 언젠가 TV에서 우리와 같은 80대는 7시간 이상의 수면을 취해야 건

강에 좋다고 했어요. 제 나이 20대가 되면서 배우기 시작한 테니스는 요즘은 나이가 있어 일주일에 서너 번 트레이닝하고 있습니다. 바둑도 일찍 배워서 나이 서른이 되기 전에 시작해 복지관에서 두고 있으며 공휴일에는 바둑협회에서 시간을 즐기며 건강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Q: 태어난 장소는 어느 곳인가요? / 가족구성은 어떻게 되는가요?

홍천살이 70년의 책자에 보면 상동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1941년에 태어나 횡성군 공근면 상동리 어영골이라고 되어 있지요. 선조께서 경북 봉화에서 300여 년 전 이사를 했어요. 홍천군에 자리를 잡았고 영귀미면 좌운리에 1954년 중학교 입학과 동시에 홍천 숙부택에서 살았으며 홍천에서는 이사를 7차례이상 했으며 어느새 지금에 이르고 있지요. 지금 생각하면 문학적인 토양은 어영골이 아니었나 생각돼요. 처음 문학에 접어든 것은 중학교 1학년 때가 아닌가 합니다. 톨스토이의 죄와 벌을 문예반 활동을 하면서 통독을 하기도 했으니까요. 가족은 1남 2녀이며 아내는 먼저 먼 곳으로 갔습니다.

### Q: 홍천살이 70년을 쓰게 된 특별한 동기가 있나요?

A: 홍천에 살면서 홍천의 변천사를 지켜보며 관심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글을 쓴 사람들의 공통된 생각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던 차에 후배 작가인 시인이 “산 따라 물 따라”라는 기행문을 주간 홍천신문에 연재하기 시작하기 시작했지요. 그때에 그 글을 읽다 보니 오류 부분이 있어 정정하면서 홍천 신문에 칼럼을 기고하기 시작했지요. 기록에 빠진 것, 그리고 보충하거나 삭제할 것 등등. 쓰다 보니 어느덧 500호의 연재를 하게 되었지요.

홍천 소사(小史)를 기록한 듯한 홍천살이 70년은 그냥 지나쳐 버리면 아주 사라질 이야기가 꼼꼼하게 쓰여 있다. 제1부는 홍천 읍내에 7개의 연못이 있었다. 제2부는 홍보 표어로 살펴본 한 시대의 사회상. 제3부는 내가 겪은 6·25 이야기. 제4부는 명절과 현대인의 이야기, 5부는 바르게 살기는 인성교육의 근본이다 등등 총 14부로 광범위하게 꾸며져 있다. 홍과 강정식은 국가 기록물의 심사위원이며 현대예절교육 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해 사회에 봉사하고 있다.

여기 언급한 홍천살이 70년은 홍천에 살면서 홍천을 알고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고장의 애향심을 고취하는 지침서 역할이 되리라 믿는다. 김정현 기자(kjh8639@hanmail.net)





예술기행

동심의 꿈을 노년에 담아주는 화가들

# 화선지에 담아보는 노년의 행복

갑자기 찾아온 100세 시대, 단순 수명 연장이 아닌 진정하고 행복한 미래세계에 걸맞은 삶을 어떻게 향유할 것인가?

막연하나마 나름, 노년에 이어질 자신만의 행복을 위한 노력을 실천하며 서둘러 준비하려 하고 있지만, 막상 노년에 이르면 미처 준비하지 못한 미래세계에 대한 불안감이 도사리고 있는 현실을 안고 살아가고 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정보를 취득하기도 하고 참여의 기회를 얻으려 노력하고 있지만, 쉽지 않아 고민하기도 한다.

제한적인 기회와 참여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이고 다양한 노인복지 정책은 그나마 많은 위안이 되고 있다. 하지만, 각종 공적 지원 단체의 예능프로그램 속에 여가를 즐기려는 노인들의 행복한 미소 뒤에는 아직도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노인들이 있어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핵가족화 시대에 그들이 겪고 있는 고독과 무료함을 해소해주기 위하여 예술의 혼을 담아 정신적 위안과 함께 작은 행복을 담아주려 노력하고 있는 전문예술인들의 봉사현장을 찾아보았다.

쇠를 깎아내는 전동기계 소리와 함께 붉은 불꽃이 튀겨져 나오는 작업장은 마치 복잡한 철공소를 연상하게 하였다. 산과 숲으로 둘러싸인 고즈넉한 시골 마을, 좁은 오솔길을 따라 건물 입구 주차장 한 편에 각종 전동기구와 톱, 망치가 가지런하게 진열되어 있는 작은 공간 건너편 화구들과 그림들이 걸려 있고 미처 정리하지 못한 전문서적들이 즐비하게 쌓여 있었다.



◇지부장 정혜레나

새로운 활력을 안겨주며 유년의 작은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바쁜 일상을 뒤로 하고 봉사활동에 열중하고 있는 조각가 정혜레나, 서양화가 양혜란, 민경자, 최인식, 사무국장 김영희 등이다. 지부장 정혜레나 58세(사진)는 서울대학교에서 미술학을 전공하고 1994년 홍천에 내려와 이곳 영귀미면 사락골에 동지를 틀고 동호인들과 함께 부족한 지역예술의 지원을 위한 창작활동등, 저변 확대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현재 박사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바쁜 일상이지만, 작품을 설명하는 그의 자상하고 화사한 미소와 회원들의 열정이 상큼하게 흐른다.

매주 금요일 오후 1부(2시~4시:예술회관 2층) 미술의 이론강의, 2부(오후 6시~8시:전통시장 옥상 및 공간과 시각에서 스케치와 현장 실기학습으로 구분, 「크로키라는 미술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다양한 장르(서양화, 한국화, 도예, 민화, 서각)를 전공한 전문 화가들이 홍천군 문화재

## 21년도 사업 실적 및 22년도 추진 계획

사업명	내용
◆ 21년도 사업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회 개인전</li> <li>• 홍천강자연을품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술관 1관(조각작품 20여점)</li> <li>• 작품 전시(홍천강과 작가의 작업영상 송출, 대담(6명), VR가상 갤러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술이론강좌</li> <li>• 크로키(미술교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홍천예술회관</li> <li>• 중앙시장2층/시각과인식(개인미술학원)(크로키/ 어반 스케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술페스티벌(위대한 소품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크리스마스를 잃어버린 키트 제작 체험(작가들의 소품 판매:수익금 사회에 기증)</li> </ul>
◆ 22년도 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1회 미술관1관(철의변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프로젝트 기획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홍천 미술기획전, 미술강좌, 미협전</li> <li>• 크로키(어반스케치), 미술 페스티벌</li> <li>• 소규모 그룹전/전시</li> </ul>



◇교육현장(조각 정혜레나, 서양화 양혜란, 민경자, 최인식, 김영희)



단의 지원 아래, 유년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아쉬워하고 있는 노인들과 여건이 불비한 수강생들을 위해 오후 및 저녁 시간을 이용하여 봉사 활동을 벌이고 있다. 열정과 달리 기초지식이 전무한 서툰 솜씨들이지만, 정성을 다하여 교육에 열중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은 잠시나마 동심의 세계에 젖은 듯 행복한 여유로움을 느끼게 한다.

문화적 혜택에 취약한 지역인을 위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을 때, 그림을 배우고 싶어 하는 노인들이 사비를 들여 어렵게 그림을 배우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노인들을 위한 희망과 꿈을 드리하고자 회원들과 함께 10여 명을 목표로 시작하게 되었으나 점차 호응도가 높아, 참여하고 싶어 하는 수강생들의 요청이 쇄도하고 있으나 협소한 장소와 예산 부족으로 모두 수용하지 못하고 있어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는 소회를 밝히기도 하였다.

삶의 현장에서 일하며 공적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하여 무료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안겨줄 수 있도록 노인들을 위한

야간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처음 민속시장 이층에서 실시하고 있었으나 트리엔날레 행사로 작업공간을 확보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으나, 최인식 원장의 제의에 따라 학원생들의 바쁜 스케줄과 공존하며(공간과 시각) 기초교육을 반복하고 민속시장 등 현장실습을 통한 실기 위주로 자신감을 배양하는 현장 지도 교육을 하고 있다. 당초 12월 말까지 진행하려 하였으나 조기 종강할 수밖에 없게 되어 많은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고 말한다.

특히 겨울철 코로나19로 가뜰이나 움츠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상에서 벗어나 100세 시대에 걸맞는 작은 꿈을 키우고 싶어 하는 노년의 삶에 희망과 용기를 안겨주고 여건상 정상적인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는 많은 소외계층의 정서 함양을 위하여 크로키와 같은 작은 소그룹 봉사 활동을 더욱 활성화시켜 부족한 공적 영역의 공간을 담당하게 함으로써 많은 노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다 많은 예산 지원과 관심을 기대해 본다.

진용섭 기자 chin524@hanmail.net



# 한식집 “준이네 통나무집”



차림상			
곤드레 철판 비빔밥	9,000	감자전	8,000
홍삼 청국장	7,000	도토리묵 무침	7,000
산채 비빔밥	7,000	옥수수 막걸리	4,000
홍천찜 콩국수	7,000	소주	4,000
		맥주	5,000

판매합니다			
생홍삼청국장	9,000	공취장아찌	15,000
모듬장아찌	25,000	고추장아찌	15,000

원산지 표시판				
품목	원산지	음식명	원산지	음식명
밥	충청남도	밀가루	경상남도	김치
콩국수	충청남도	소고기	충청	콩
콩	충청남도	감자	충청	도토리

◇준이네 통나무집 내·외부 전경

## 통나무에 황토를 바른 시골 고향집의 푸근함 홍삼청국장과 곤드레철판비빔밥은 영양이 일품

- 주소** 강원 홍천군 두촌면 설악로 3643
- 영업시간** 오전 8시30분~오후 7시30분 (매주 화요일 휴무)
- 주차** 전용주차장 (주차공간 넉넉함)
- 전화번호** 033-435-2017
- 대중교통** 철정3리, 향교골입구 정류장에서 도보5분 거리

### 국도변에서 만나는 토속 음식점

44번 국도변 두촌면 설악로에 있는 준이네 통나무집(대표 신명순)을 찾았다. 상호 그대로 통나무에 황토를 바른 시골 고향집의 푸근함에 할머니가 버선발로 반겨줄 것만 같다. 벌써부터 손님 맛을 준비로 굴뚝에서 뿜실뿜실 뿜어져 나오는 하얀 연기에 빨려들어 식당 문을 여니, 큰 화목난로가 추운 날씨에 바짝 움츠렸던 몸을 아늑한 온기로 반가이 맞이해 준다. 방송에도 여러 번 나오고, 고 김수환 추기경님이 다녀가신 유명한 집이라고 익히 들어서인지 주문하기 전부터 기대가 많이 된다.

‘곤드레 철판 비빔밥’을 동행인과 함께 주문하고 나서 실내 이곳저곳을 살펴보았다. 홍삼청국장을 만드는 비법이 사진으로 벽에 걸려 있었다.

주문한 식사가 한상 차려지면서 곤드레와 각종 야채를 얹은 철판에 계란프라이와 듬뿍 뿌려진 참깨가

루가 양념장과 함께 지글지글 후각을 자극한다. 먹음직스런 비주얼에 인중 샷을 남기려고 하는데 보글 보글 끓고 있는 청국장이 또 나온다. 어릴 적 어머니가 끓여주던 청국장 맛이 혀끝에 느껴지면서 타임머신을 타고 약 오십 년 전으로 돌아간 듯하다. 반찬 하나하나에도 토속적인 정감이 묻어난다.

### 직영농장에서 재배한 식재료 사용

철판에 밥을 넣어 비비고 있는데 주인장께서 난로에 장작을 넣으며 한 소리 던지신다.

“우리집 밥상은 곤드레를 비롯해 모든 식재료가 직영농장에서 직접 재배한 것들입니다. 곰취, 곤드레, 명이나물 장아찌와 홍삼청국장도 판매하고 있으니 식사 후 가족들을 위해 구매해 가셔도 좋아요.”

“이곳에서 식당을 하신지는 얼마나 되셨죠?”

“38년 전 이 자리에 원두막을 지어 농사 지은 옥수수를 판매했어요. 그때는 2차선이었는데 홍천군에서 최초로 길 옆에서 옥수수를 판매하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1990년에 건물을 지어 그 이듬해부터 음식점을 시작했습니다.”

“홍삼청국장이 아주 맛있는데 어떻게 담는 건가요?”

“콩을 삶을 때 수삼을 같이 넣어 삶습니다. 물이 졸아 들면서 삼은 녹아서 없어지고 콩에 인삼의 진국이 배어 들어 청국장을 띄우는 과정에서 영양 많은 홍삼청국장이 된답니다.”

### 노릇노릇 토실토실 익어가던 유년의 온돌방

주인아주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다보니 반 공기만 먹으려던 밥그릇이 어느새 바닥을 보였다. 달큰한 청국장이 입안을 감돌면서 유년의 빛바랜 기억들이 새롭다. 담북장(청국장의 충청도 방언) 담은 날이면 푹 삶아진 콩을 한 주걱 떠서 어머니께서 부르셨다. 밖에서 놀다가 부엌으로 달려가 받아먹는 구수한 콩 맛은 오십년이 지난 지금도 잊을 수 없는 별미이다.

실경에 메주 뜨는 냄새 쿵쿵하고, 굵은 날에는 방 안 가득 썰어 말리던 무 향내, 아랫목 솔독에는 향기로운 술이 익어가던 온돌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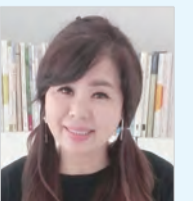
그 속에서 노릇노릇 토실토실 여물게 익어가던 우리들 어린 시절이 문득 그리워진다.

### 맛집 주머니 속의 ‘준이네 통나무집’

44번 국도변의 ‘준이네 통나무집’은 나의 맛집 주머니에서 언제라도 다시 찾고 싶은 토속 음식점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지금은 차들이 썩썩 달리는 4차선 큰 길가에 있어서 건너편 길인 홍천읍내 쪽에서 올 때에는, 식당을 막 지나서 교통감응신호가 표시되어 있는 파란색 ‘zone’ 안에 차량을 위치하면 1분 안에 좌회전 신호로 바뀌어, 멀리 가서 유턴을 하지 않아도 바로 식당으로 올 수 있다고 주인장께서 귀띔해준다.

코끝이 알싸하게 찬바람이 부는 초겨울, 곤드레 철판 비빔밥 사이에서 고소하게 씹히던 찹옥수수 알갱이처럼 끈끈한 고향의 정감이 그리운 날이다. 든든한 한상차림의 ‘준이네 통나무집’에서 건강한 한끼 식사를 즐겨 보자.

조하경 기자(jok9621@daum.net)





지역소식

골프대회

# 제1회 흥천 무궁화배 그라운드골프대회 개최



◇제1회 무궁화배 강원도 그라운드골프대회 모습



흥천 무궁화배 강원도 그라운드 골프대회에 강원도 시·도 대표선수가 총 출동하여 2021년 11월 1~2일 양일간 흥천읍 생활체육공원 경기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위드 코로나로 방역체계가 전환된 이후 처음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도내 시 군 대표선수들이 대거 출전해 그동안 같고 닦은 실력을 뒤편하며 답답했던 가슴을 활짝 열고 선의의 경쟁을 펼쳤다.

창간 76년을 맞은 강원일보와 강원도 그라운드골프협회가 공동주최하고 흥천군체육회, 흥천군그라운드골프협회 등이 공동 주관했다.

대회 첫날에는 단체전 및 부부전 경기가 펼쳐지고 그 이튿날에는 개인전 최강자를 선발했다. 그라운드골프는 골프와 게이트볼의 장점만 탄 대표적인 실버스포츠로 경기규칙이 간단하고 운동비용이 적게 들어서 대다수의 어르신들이 즐기시며 7330(일주일

에 세 번 이상 하루 30분 운동하기)을 실천하는 생활체육 스포츠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스트로크 매치(stroke match) 방식으로 16홀 경기를 하며 대한그라운드골프협회의 경기규칙을 적용한다.

노승철 흥천군그라운드골프협회장은 “그라운드골프는 누구나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스포츠로서 각 지역에서 즐기시는 어르신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며 이번 대회를 계기로 하여 그라운드골프가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영월군 단체전 제1회 흥천 무궁화배 그라운드골프 초대 챔피언**

제1회 흥천무궁화배 그라운드골프대회가 첫날 11월 1일 흥천읍생활체육공원 축구장에서 개막해 허필홍 흥천군수, 공군오 흥천군의장, 박진오 강원일보

보사장 등 내빈들도 함께 했다. 첫날 단체전에서 영월군이 우승을 차지했고 흥천군이 2위, 인제군이 3위에 올랐다.

그 뒤를 이어서 부부전에서는 태백의 김남민, 한영희씨 부부가 우승을 차지하고 2위는 흥천의 허종원씨 부부가, 3위는 양양의 함용희씨 부부가 각각 수상했다.

허필홍 흥천군수는 “건강놀이터 흥천에서 좋은 기량을 마음껏 펼치시고 꾸준한 운동과 자기 관리로 건강한 노후 생활을 보내시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박진오 강원일보 사장은 “그라운드골프의 저변 확대를 위해 올해 첫 무궁화배 대회를 개최했으며 앞으로 더 많은 어르신이 참가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개막식에는 공군오 흥천군의장, 박상록 흥천군체육회장, 박수근 도그라운드골프협회장, 노승철 흥천군그라운드골프협회장, 신영재도의원, 방정기 군의원을 비롯한 내빈과 선수단 400여 명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마무리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내년 제2회 흥천 무궁화배 그라운드골프대회를 기약하며 많은 선수와 아쉬운 작별의 인사로 단 한 사람의 낙오자가 없이 마무리가 되었다.

안태수 기자  
(taesu9110@naver.com)



문화탐방

강원국제트리엔날레

# 강원국제트리엔날레를 계기로 예술무대로 재탄생

강원국제트리엔날레에 39개국 104팀(139명)의 작가가 참여한 가운데 9.30~ 11.07 까지 약 한달동안 대장정의 막을 내렸다.

강원국제트리엔날레 2021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흥천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것으로 2019년 강원국제예술제, 2020강원키즈트리엔날레에 이어 3년동안 연속해서 개최된 행사다.

무대장소는 흥천 지역내 흥천미술관, 와동분교, 탄약정비공장, 흥천중앙시장. 4곳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흥천군은 2019년 강원국제예술제 첫 번째 행사장으로 흥천읍 결운리 옛 탄약정비공장을 공연장으로 마련했다. 이는 총알 대신 그림 등을 통해 전쟁에서 평화를 상징하는 의미를 부각했다. 탄약 정비공장은 옛 군인 병사들의 애환으로 폐허가 된 공장이 수 년 동안 그대로 방치되었다가 강원 국제 트리엔날레를 계기로 하여서 예술무대로 재탄생하게 되었다. 그러나 탄약정비공장에 비치된 작품은 탄약이 가지고 있는 파괴성 등 환경과 파괴에 대한 문제제기로 이어져 차갑고 섬뜩한 느낌이 들 정도였다.

주봉초교와 와동분교는 2015년에 3월에 통합되면서 폐교되었으며 강원국제 트리엔날레의 예술무대로 활용되었다. 다양한 과학기술 발전을 기반으로 하여 3차원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동시대의 미술이 가지고 있는 사회참여에 대한 모습을 그리고 있다. 와동 초교생들이 즐겨 부르는 노래로서

“새야 새야 파랑새야. 녹두밭에 앉지 마라.  
녹두꽃이 떨어지면 청포 장수 울고 간다”

이 노래는 우리 옛 선조 농사꾼이 자식에게 전하는 삶의 애환이 전해지는 이야기이다.

흥천미술관에서의 전시는 아카이브 전시와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의 주장을 작품을 통하여 표현하고 있었으며 흥천중앙시장에서는 지역 상인과 예술가의 협업으로 상인들의 나이듦과 현 시대를 살아가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을 주름진 손을 통하여 영상으로 담아 표현하였다.

2020년 강원키즈트리엔날레는 우리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예술이라는 사명감으로 국내 최초의 어린이 시각예술축제를 성공시켰다.



◇산뜻한 빛의 삼원색과 물감의 삼원색을 통해 퇴락한 구조물을 입체적인 기하학적인 추상이라는 예술작품으로 표현

올해 강원 국제 트리엔날레는 탄약을 나르던 컨베이어 벨트를 수리해 다시 움직이게 했고, 강원도 민들의 생활유물을 전시하는 등 지역재생을 실현하고, 지역공동체 스스로 즐길 수 있는 지역의 예술 축제의 장을 완성했다.

이광명 기자  
(shout1700@hanmail.net)





**인생칼럼**



**석도익**  
소설가

면서도 하늘에 늘 감사하며, 살아 가는 농심(農心)은 태양에 그을린 얼굴에 땀 흘리며 가꾼 곡식들이 힘들었던 만큼 풍요로운 결실로 일렁이는 것을 바라보며 보람을 느낀다.

날알 한 톨이라도 금쪽같이 귀한 것을 새들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아이들에게 강통을 들려 새 쫓으라고 보내기도 했으나, 부족한 일손을 대신해서 나무와 짚으로 인형을

어 들로 가져가야 하는 역할로 분업이 되어 왔다. 그러므로 자연 농사일은 남자들의 일이라 허수아비도 남자만 만들었던 것이 아닌가 싶다. 아니면 허수아미를 만들어 놓으면 새들이 전혀 무서워하지 않을 것이라는 편견에 서일까? 그러나 어린 아이 같이 작게 만든 것은 허수라고 불러주지 않는다.

세월이 갈수록 세상은 황량하고 허전하게 비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모내기를 하여도 이웃과 나누던 못밥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자장면을 논둑으로 배달시켜 먹어야 하고, 농기계 다루는 젊은이들을 위해 시내 다방에 커피시켜서 대접해야 하는 것이 농촌의 풍경이다.

농촌이고 어촌이고 이제는 남자가 따로 없다. 부부가 함께 일하지 않으면 일손이 없으니 농촌이나 어촌에 시집을 처녀가 없어, 장가가기 힘든 총각들 외국으로 장가들러 다녀야 한다.

실정이 이러하니 집에만 있던 허수아미도 논으로 나오고, 경로당에서 더위 식히던 허수 할아버지 할머니도 허수네 일가가 모두 나왔나 보다.

농업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업을 외치며 유기농법의 농촌홍보 이벤트로 허수아미를 연출하는 어느 마을에 도로변, 넓은 논에 즐지어 늘어서 있는 허수네 가족들, 그리고 이웃들이 형형색색의 옷을 걸치고 있는 해학이 넘치는 모습들을 바라보노라면 가슴에서부터 일어나는 따듯함과 농촌에서 풍겨나는 넉넉함의 포만감에 마음이 든든하고 즐거워진다.

허수아비라도 많이 서 있었으면 좋겠다. 외로워져 가는 겨울 문턱 농촌 들녘에 …….

## 허수는 어미가 없다

지난날 허수는 어미가 없었는지 허수아비 혼자서 논에 나와 있다. 언제나 허름한 하얀 저고리에 밀짚모자를 눌러쓰고 외롭게 서 있다. 가끔은 허수도 험렁한 어른 옷을 입고 나와 있을 때도 있었지만 허수어미는 가을이 다 지나가도록 본 사람이 없었다.

예전에는 그랬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다. 논에 나오지 않던 허수어미도 허수할머니도 허수할아버지도 허수네 이웃집 아저씨 아주머니까지 함께 나와 온 들녘을 메우고 있었다. 그것도 울긋불긋 원색의 옷을 입고 즐거운 모습들로 곡식이 무르익어가는 가을의 논밭에서 풍성한 축제를 열고 있었다.

하늘 우러러 비를 기다리고, 비가 너무 내리면 그만 오라 원망하

만들고 떨어져 입지 않는 허름한 윗저고리를 입고 헤어진 밀짚모자 눌러 씌워서 논밭에 새 쫓는 초병으로 세우니 이것을 우리는 허수아비라고 했다.

사람을 대신해서 사람들이 하여야 하는 일을 해주므로 붙여준 이름인데 왜 허수아비만 있고 허수어미는 없는 걸까? 농촌에서 대대로 이어 농사를 지었으니 온 가족이 함께 일하고, 농번기 때는 이웃이 두레로 일하였으므로 일손이 부족하지 않은 편이라 남정네는 논밭에 나가 일하고 아낙들은 음식을 만들

앞서는 농촌에는 농사일을 해야 하는 젊은 사람은 도시로 가고, 나이든 사람들만 힘겨운 농사를 짓고 있으니, 농촌일손부족현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이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고, 외국인 노동자들의 손을 빌렸으나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이마저도 여의치 않아 때때로 밭을 동동 굴러야만 한다.

농촌도 이제는 기계화되고 현대화 되었다지만 농기구 역시 사람이 다루어야 하고 기계가 하지 못하는 부분이 더 많은 농사일이라 노부부가 함께 농사일에 매달려야 하니

**홍보**

**국민연금공단 홍천지사**

# 거주불명등록자도 기초연금 혜택 누리도록 팔 걷는다

### 국민연금공단 홍천지사, 홍천군과 손 잡고 11월 말까지 거주불명등록 기초연금 대상자 발굴

- 국민연금공단 홍천지사(지사장 박성주)는 거주지가 불분명한 사람도 기초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거주불명등록 어르신 중 기초연금 수급대상자를 찾아 나선다고 밝혔다.
  - 그동안 거주불명등록자 대부분은 가족과의 연락두절 등 소재 파악 및 접촉이 어려워 복지제도 안내가 곤란했으나, 이번 발굴 조사를 통해 기초연금이 꼭 필요한 어르신들의 복지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공단은 홍천군과 협력하여 거주불명등록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발굴 및 홍보를 11월 말까지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이번 발굴조사는 만 65세 이상 거주불명등록자 중 거주불명등록 기간이 최근 5년('17.1.1.~'21.8.31.) 이내인 기초연금 미수급 어르신이 대상이며,
  - 홍천군이 사전조사를 통해 발굴대상을 선정하면 공단은 사전조사에서 확보한 연락처나 거소지로 개별 접촉하여 기초연금을 신청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 아울러 공단은 홍천군의 협조를 통해 지역의 공공계시대 등에 현수막과 포스터를 게시하여 기초연금 신청 홍보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 기초연금 상담·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콜센터(국번없이 1355, 유료)로 문의하면 되고,
  - 신분 노출을 기피하는 경우 거주불명등록 어르신 본인이 상담 시간·장소를 지정해 상담받는 '신분 미노출 신청 서비스'를 활용하면 된다.
  - 상담을 원하는 경우 공단 콜센터, 반송용 우편을 통해 예약할 수 있다.
- 박성주 지사장은 "어르신 한 분이라도 더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신청 안내'를 더욱 촘촘히 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기초연금을 통해 최소한의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